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자유와 원만을 갖출 때

인간의 삶은 마치 보물섬과 같으니

실패한 빈 손으로 돌아오지 말거라.

탐험가가 보물섬을 발견하고 그의 배에 금,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등 보석을 가득 싣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어떠한 금이나 보석들보다 인간의 귀중한 삶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르마를 사유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보물은 소승, 대승, 금강승이 제공하는 다양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당신은 인간이 가진 유리한 조건으로 불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무시한다면 마치 거지가 보석을 주어 유리 조각처럼 다루거나 쓰레기 더미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쁜 것은 소중함 인간의 삶을 이해하면서도 이리저리 방황하며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의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그 탐험가가 보물섬에서 빈손으로 헛되이 바다를 건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 현상 변경·환수 등 문화재 행정 ‘도마 위’

## 2013 국정감사서 국회 교문위, 외통위 관련 부서 지적

2013년 국정 감사에서는 문화재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 현상 변경 체계의 부실한 관리부터 4대강 문화재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주미 한국 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내 한국문화재 환수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10월 1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관련한 기본적인 법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한 후 규정에 따른 서류도 대다수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보호법 제40조는 문화재 현상 변경 시 착수하거나 완료했을 때 15일 이내에 반드시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문화재청은 신고된 착수보고서나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국가 지정 문화재나 문화재 지

역구역에 대한 현상변경이 허가 사항대로 이행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문화재청은 4,283건의 현상변경을 허가해 줬으나 착수보고서와 완료보고서가 모두 제출된 건수는 허가기간이 완료된 3,453건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919건에 불과했다.

### 문화재 현상 변경 체계 부실 지적

### 4대강 문화재 영향평가 허술 비판

### 미국 내 우리 문화재 환수 주장도

또한 최근 5년 간 제출된 919건의 보고서 중에서도 공사실시방서,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사진, 준공도면 등 반드시 첨부해야 할 부속서류까지 모두 제출한 보고서는 100건도 채 되지 않는 등 문화재 현상 변경 관리에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다. 특히,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103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문화재청은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앞으로 3천 300여명에 이르는 신고 의무 대상자에 대한 ‘뒷북’ 과태료 부과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 인근에 있는 문화재 관리의 허술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문화재조사가 문화재청 기준조사비의 절반도 안되는 비용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4대강사업 관련 문화재조사 대상 167개 유적, 218개 조사현장 중 약 30%에 해당하는 64개소의 문화재조사가 문화재청의 표준품셈에 따른 기준조사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4대강 문화재조사의 기준조사비와 정산비를 검토한 결과 정산비가 기준조사비의 50%도 안되는 조사가 30%(총 218개 중 64개)에 달했다.

정 의원은 “문화재청의 표준 기준조사비

가 합리적으로 책정된 비용이라고 인정할 경우 이는 4대강 문화재조사가 그만큼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환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0월 17일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확인한 해외 한국 문화재는 15만 2915개인데, 이 중 22.7%인 4만 2325개가 미국에 있다”며 적극적인 환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따르면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 15만 2915점 중 27.7%가 미국에 있지만 최근 5년간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환수는 70점에 그쳤다.

박 의원은 “주미 한국 대사관은 문화재청, 민간기구 등과 함께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현황 파악에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현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관의 역할이 큰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미 한국 대사관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자승 스님 취임식 테마는 ‘검소·화합’

## 11월 8일 오후 2시 취임식... 大탕평책 제안 예정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취임식이 11월 8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이날 취임식은 간소한 가운데 전 종도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부장 증훈 스님은 10월 16일 중앙종회의장단 연석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식 일정이 11월 8일로 종무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면서 “자승 스님의 취임식은 연임인 만큼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취임식에서는 향후 4년간의

종단 운영기조에 대한 전반이 발표될 것”이라며 “선거로 분열된 종도들의 마음을 화합시킬 수 있는 대탕평책도 계획하고 있다”고

### 10월 31일 첫 공식 일정

###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봉사

말했다. 10월 30일 임기 만료된 자승 스님의 임 후 첫 공식 일정이 ‘소의계층 위한 봉사

인 점도 눈길을 끈다. 자승 스님은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 당시 첫 일정을 ‘용산 참사 피해자 조문’으로 시작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현재 추진되고 일정은 10월 31일 오전 자승 스님과 총무원들은 회의를 열고 새 집행부의 시작을 알리고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을 방문해, 겨울을 앞둔 지역주민들을 위해 연탄배달 봉사를 할 예정이다.

개미마을은 자승 스님이 지난 2010년 33대 총무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방문했던 곳으로, 300여 가구에 연탄과 쌀을 후원한 바 있다.

신종일 기자

## 조계종 교육부장 정도스님 임명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에 정도 스님(양산전법회관 주지·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10월 15일 한국불교역사



문화기원관 2층 집무실에서 신임 교육부장 정도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불교교학과 수행 발전과 종단 승가교육의 정체성 확립에 앞장서 오신 분으로 알고 교육부장으로 모셨다”고 말했다.

정도 스님은 임명장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선 교육기관에서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면서 승가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 좀 더 변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교육부장 정도 스님은 1985년 도승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1985년 사미계를, 1991년 구족계를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각각 수지했다. 동국대 선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도스님은 통도사 승가대학 강사를 역임한 뒤 조계종 교수아사리와 통도사 양산전법회관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신종일 기자

# 보우 국사 기리는 문화제 열린다

## 태고종, 10월 25일 제3회 태고문화축제 개최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10월 25일 서울 북한산 태고사에서 ‘나라사랑, 북한산 사랑, 희망나눔’을 주제로 제 3회 태고문화 축제를 연다.

태고보우 원종국사 탄신 712주년을 맞아 개최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서로 함께 기뻐해 소통과 나눔의 축제로 진행된다.

태고보우국사 부도탑서 시작되는 다례제에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유명가수와 국악, 풍물이 어우러지는 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행사장에는 유명 서예가의 붓글씨

와 그림이 전시되며, 축제 참가자에게는 무료로 배포된다.

또한 300여명에 달하는 청사초롱에 누구나 자기 소원을 담은 소원지를 붙이는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된다.

태고종의 축제 관계자는 “우리의 전통불교문화와 현대음악이 함께하는 문화의 향연을 통해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발전 그리고 국민대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10·27 법난 33주년 기념식

1980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에서 최대의 수난사이자 한편으로는 한국불교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군인과 경찰 등 3만여 명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전국의 5천여 개 사찰을 군화발로 짓밟고 2천여 명의 스님과 불교신도들을 연행하여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했던 대표적인 탄압사태인 ‘10·27법난’이 벌어진지 벌써 33년이 흘렀습니다.

이에 ‘10·27법난’의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10월 25일(금)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기념식 : 1부 기념법회  
2부 추모문화예술제  
· 시 낭송회  
· 추모공연

▷ 문 의 : 02)2011-1824(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